현불 논단

풍족함의 역설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여행이 우릴 떠났다" 광고 문구
업무위해 세계 다녔던 과거 회상

여행 기회 풍족했던 이전과 달리
코로나19로 해외여행 · 출장 全無
여행의 소중함 일깨우는 계기 돼

풍부함이 삶을 풍부하게만 할까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건 '무집착'

내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어플런트(affluent)'란 말이 있다. 이 용어는 풍부한, 풍족한이란 의미의 형용사로서 부족함이 없고 원하면 언제나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넘쳐나는 상태를 지시한다.

불교의 중도(中道)는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고행을 하는 삶 사이의 중도를 지칭했지만,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 있음과 없음 사이의 중도, 영원과 단멸 사이의 중도 등으로 사용되었다. 아마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을 피해 중앙을 견지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중도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어플런트(affluent)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하여 넘쳐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 아닐까? 이러한 삶은 부족하고 결핍되어 항상 모자라는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이 아닐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이 넘쳐나서 원하면 무엇이든 언제나 할 수 있는 삶을 지양해야 하는 것일까?

코로나19는 한편으로 우리 삶을 옥죄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삶의 소중한 측면을 일깨우기도 한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로 시작하는 광고가 있다. 이 광고를 보면서 불현듯 지난 10여 년간 나의 삶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해외여행이 떠올랐다. 학교와 학회 업무로, 불교 유적 답사를 이유로 인도 · 태국 · 미국 · 유럽 · 중국 등 전 세계를 여행했다. 매달 거의 1번 이상 해외 출장이 있었던 것 같았고 여행을 갈 기회가 지천에 널려 있어서 때로는 귀찮아했던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는 여행이 너무나 어플런트(affluent)해서 각각의 여행이 가지는 소중함과 남다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이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은 너무나 풍부하고 풍족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일단 부족해지면 우리의 목숨을 좌우한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과 같다.

코로나19로 여행이 나를 떠나면서, 내가 했던 여행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불현듯 인지하게 되었고 나의 삶을 얼마 많이 변화시켰고 각각의 여행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새롭게 실감하게 되었다.

〈숫따니빠따〉는 '소 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에 '소 주인은 소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답한다. 삶이 풍족하고 풍부하며 '옵플런트(opulent)'해서 가진 것이 많게 되면 이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고 그러한 집착은 결국 괴로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집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소가 많다면, 엄청나게 자식들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굳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넘쳐나는 유토피아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의 집착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뉴노멀(New Noraml)을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러한 유토피아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곳에서 우리 삶의 소중함과 남다른 가치를 결코 인지하지 못 한 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이 나를 떠나기 전 수많은 답사에서 찍어온 영상과 사진들 천천히 살펴보며 그 하나하나에 담긴 소중한 기억과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 나의 일상이 되고 있다. 다시 여행이 나를 찾아오게 될 때를 기다리며 말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나누면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넉넉하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에 모두의 바램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누라고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普施)라고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복전(福田)이 없는 사람은 제아무리 애를 써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논밭이 곡물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라는 밭에 복의 나무를 키우고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모터펌프의 이치와 같습니다. 모터에 물이 말라버리면 전기를 통해 주어도 물을 끌어 올릴 힘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았던 펌프는 아무리 핸들을 틀어도 물을 끌어 올리지 못한 이치와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는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다산 정약용도 재물을 오래 보존하는 길은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다. 스스로 자기 재물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무릇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다산의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말은 불교의 보시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나에게 복이 돌아오기에 보시는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베풀다 보면 마음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시에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베풀다 보면 자신이 결코 가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 가난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부족한 것만을 헤아린다면 부족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만 생각해 받으려고만 한다든지, 가난하다고 체념해 버리면 가난은 다시 되돌아오게 마련이죠.

결핍은 결핍을 부릅니다. 보시를 통해 우선 마음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베풀 수 없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이 부를 끌어들이는 원동력임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바탕이 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정부, 불교계 역할 더 주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불교계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산문폐쇄와 법회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넘어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대 불교명절인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달 연기하는 등 과감한 결단으로 협조해 왔다. 유네스코 등재를 앞둔 무형문화재 연등회를 400년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그야말로 나라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불교계의 뼈아픈 결단에 다름 아니었다. 사찰에 신도들의 발길이 장기간 끊기면서 어려움이 극에 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교계 어느 종단이나 사찰도 감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중단하지 않았다.

돌아보면 불교가 시대적 아픔과 함께 한 것은 이번 사례 뿐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나라가, 또 민중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나섰다. 자비의 손길로 아픈 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은 물론, 때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장까지 불사했다. 호국불교는 이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이미지다.

남북 정부 간 갈등이 악화되는 등 경색 국면이 이어질 때마다, 불교가 민족 동질성을 되찾는 다양한 행보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한반도 역사와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불교가 그만큼 깊이 스며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불교는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오랜 세월 한반도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스며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나눔의집 할머니 마음치유도 관심을

동국대 의료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에 나섰다. 9월 15일 동국대 의료원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이 업무협약을 맺고 할머니들의 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국대 의료원 측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소속 직원들까지 병원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교계가 나눔의 집을 운영한지는 28년, 동국대 의료원도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두 기관이 의료지원 등 할머니들의 건강한 삶에 대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계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아픈 기억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오랜기간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들의 건강한 삶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할머니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각종 질환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재활치료 등 건강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번 동국대 의료원과 나눔의집 간 협약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도 나선다면 최근 벌어진 일련의 나눔의집 사태로 인하여 불교계가 손상받은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교는 종종 의학에 비유되곤 한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듯 부처님 가르침으로 번뇌에 쌓인 이들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할머니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마음도 치유하는 일이다. 불교계가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뭇생명들을 치유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실천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